

# 일자리 찾아 떠나는 제주 청년들

### 올 3분기 청년실업률 8.2%... 역대 네번째로 높아 청년실업자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 20대 인구 지난 2018년 이후 '탈제주' 규모 확대

제주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몰들어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제주지역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만명으로 2000명(27.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3분기 취업자는 38만명으로 0.3%(1000명) 증가했다.

3분기 실업자 중 15~29세의 청년 실업자는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1000명)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8.2%로 1.9%p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였던 2014년 2분기(9.9%), 올해 2분기(9.2%), 1999년 3분기(8.8%)에 이어 역대 4번째 높은 수준이다.

대학 진학 등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도내 20대 인구는 2017년만 해도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 979명이 순유입됐지만 2018년엔 전출인구가 더

많아 145명이 순유출됐고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까지 3년 연속 순유출 규모를 키웠다.

또 2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5만 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2011년에는 3만700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18년 4만 8000명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 4만 5000명, 2020년에는 4만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 3분기 기준 20대 취업자는 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3분기 취업자 중 종사자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1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5.9%(8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는 24만8000명으로 4.0%(1만명)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10만7000명으로 3.2%(4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섬지코지 썩부쟁이 13일 서귀포시 성산을 섬지코지 해안에 갯속부쟁이가 활짝 피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2999명

### 13일 9명 확진... 집단감염 학원은 '실내체육시설'로 명명

제주지역에서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하루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5시까지 9명(2991~29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115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77명이 확진됐다. 주 평균 1주간 1일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9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해외 입국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 등이다.

우선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도장)' 집단감염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됐다. 도방역당국은 지난 12일 해당 집단감염을 '제주시 학원3'으로 명명했으나 13일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도장)' 사례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기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관련 확진자는 12명이다.

한편 탐라문화재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2024년 개교 서부중 설립 '속도전'

### 도교육청 "토지매입·설계용역 병행 추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던 '(가칭)서부중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제주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2024년 3월 개교까지는 남은 일정이 빠듯해 추후 절차들의 순항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8월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열람공고를 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교육청이 시설 결정을 신청한

지 11개월만이다. 열람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의견 수렴을 거친 도시관리계획안은 이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결정 고시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설 결정 절차가 도교육청의 당초 목표 시점(올 2월 마무리)보다 지연되면서 토지매입, 설계용역, 공사 등의 후속 절차 진행도 미뤄진 데 있다. 설계용역에만 1년이

걸리는 데다,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기간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개교 목표시점까지 남은 일정이 팍팍한 상황이다.

일단 도교육청은 시설 결정이 고시되는 대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는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칭)서부중' 신설은 제주도 시 외곽1동 55 일원에 30학급(특수 1학급 별도) 전교생 843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설립 소요 예산(추정)은 약 480억원이다. 향후 개교 시 제주도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과대·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불편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 한림로 난립 통신선·전신주 지중화

### 제주시 23억 투입 850m 정비

제주시 읍지역의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력 통신선 및 전신주 등 각종 가공선로가 지중화된다.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림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한림로 주변은 한림읍 주요 상가 밀집지역으로, 인도 구간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력·통신

선 및 전신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보행로 및 안전시설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주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연장 850m 구간을 지중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 23억원(공사비 6억원, 지중화 분담금 17억원) 투입해 우선 한국전력공사에서 가공선로의 지중화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와 병행해 내년 9월 사업완료로 목표로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개 노선에 걸쳐 15.87km를 정비했다. 현재는 한림로 노선 외에 판덕로8길 등 9개 노선에 총 사업비 217억원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 "얼굴 확인 거부하면 수능 무효 처리"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데, 금지 품목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은만큼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관련 세부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이달 중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 내년 교사임용고시 4.59대 1

2022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4.59대 1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최종 마감한 결과 86명 선발에 395명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일반)는 8명 선발에 239명이 접수해 29.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 경쟁률은 ▷일반 1.86대 1(58명 선발 108명 접수) ▷장애 0.6대 1(5명 선발 3명 접수) ▷도도지역 1.5대 1(2명 선발 3명 접수)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www.irimgallery.com

**이룸갤러리**

## 백광익 화백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기간. 2021. 10. 2(토) ~ 10. 20(수) 장소. 이룸갤러리 전시실A**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i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백 광 익** (白光益)

**주요 경력**

- 개인전 40회 한국(서울, 부산, 광주, 제주), 미국(뉴욕), 중국(북경, 천진)
- 단체전 및 초대전 (360여 회)
- 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부산, 경기, 제주도, 대구삼성, 행주, 한밭,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 혁 동인, 제주 전업작가회  
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작가

**인사말**

이룸갤러리에서 백광익 화백을 모시고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초대한 백광익 선생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 특유의 문화와 자연을 살포서 체험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안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제주의 특별한 자연 유산 '오름'과 '바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광익 선생님의 많은 수상 이력에서도 알 수 있는 우수한 실력과, 최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시대보다 딱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은 글로벌 시대 속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힘쓰시는 백광익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전야같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쓰러지지 않는 고목나무같은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 하셔서 백광익 선생님의 제주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룸갤러리 관장 이 회 속

찾아오시는 길 |



오일장 교차로 제주서중 이룸갤러리 순복음교회 신광사거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